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6월 9일(월) 제694호 창간 18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권 주간 박계우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송문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9 외대복보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8 FAX 961-4183 (음성)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월곡리 산 9

“두 젊은이 죽음... 법적·도덕적 책임지겠다”

유례없는 원천 봉쇄 속 한총련 출범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김위원)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5일(목) 새벽에 서울에서 '고 유지용 학우와 이석재 죽음에 대한 애도식 및 5기 한총련 출범 선언대회'를 가졌다. 한총련은 지난 5월 30일(금)부터 6월 1일(일)까지 2박 3일동안 한양대학교에서 5기 한총련 출범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김영삼 정권이 50여개 종대 6300여명의 전부장들과 백관단을 행사장인 한양대 주변에 배치하고 원천봉쇄시켜 출범식이 치러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한총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백관 원천봉쇄의 계속될 경우 출범식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 거리 시위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겠다”라고

고 밝혔으며 출범식을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모인 한총련 소속 2만여명의 대학생들은 ‘출발식 보장과 대선자금 완전공제, 한보비리 진상규명, 김영삼 정권 하야를 요구하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양대가 계속 원천봉쇄된 상황에서 한총련은 2일(월) 새벽 고려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3일(화)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일(월) 오후 6시경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한양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502경계대 소속 유지용(22, 전남대 체육) 상경이 추진하는 가스차(다연발탄차량)에 걸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일(수)에는 이석재(23, 노동자)씨가 한양대 학생회관 6층 교차

로실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이석재씨는 전남 프리카를통을 한 의혹을 받고 학생들에게 감한 후 프리카를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3시간 여동안 폭행을 당한 후 아찔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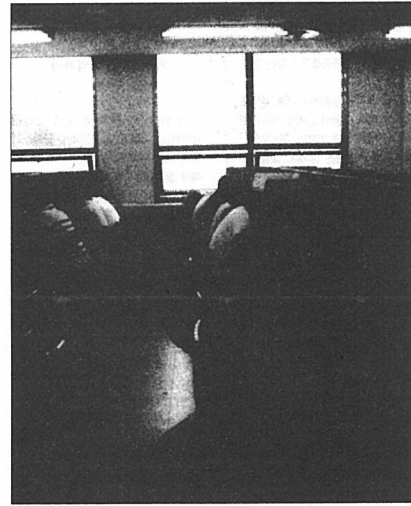
이와 관련, 한총련은 5기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동안 연이어 발생한 두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한총련은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어떠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폭력학생과 사건 목격자 등 관련자 모두를 자진 출두시켜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총련은 “출발식과 무관하게 4천만 민중의 요구인 대선자금 완전공제와 한보비리 진상규명, 김영삼 정권 타도 투쟁은 가장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혀 여전히 민족민주운동전선의 핵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이번 출범식 기간중에는 2명의 사망자 외에도 유 수(중앙대 인성배터리 사건학 4)군이 전부장들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는 등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2천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연행됐고, 5일까지 58명의 학생이 구속된 상태다. 경찰측은 전국 곳곳마다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출범식을 마치고 내려가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연행되고 구속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관련기사 9면

김영준 기자



도서관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16일(월)부터 치러질 기발고사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여 기발고사를 맞히게 마무리하고, 다다음은 뜨거운 여름에 취업없이 당당히 임승희 기자

지면 안내

‘외대인의 밤’ 행사의 문제점 3면
동문들의 도움을 바라고 이전에 학교와 재단의 우선적 노력이 있어야...
이민정정부, 시민의회의 화합이여 4면
97년 대선에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독자후보론에서 전민항쟁론까지...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농협갑시다 6면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농협은 찾아온다. 농협이 필요. 왜 재미있다고들 말하지는 않아보지.

[칼럼]

이번호를 끝으로 97년 1학기신문은 종간합니다. 다음 신문 695호는 2학기 개강일인 9월 1일(월)자로 발행됩니다.

‘외대 제2도약 선포의 날’ 행사 열려

동문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모금해

지난 6월3일(화)의대발원제인본부는 월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외대 제2도약 선포의 날’ 행사를 1500여명의 외대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화려한 레이저쇼를 문들 연 ‘외대 제2도약 선포의 날’ 행사는 우리학교 출신 연인 유영(남성·무예 84), 정은아(사범·한교 84) 동문이 사회를 맡아 △총동문회장 인사 △재단장 인사 △총장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장 김인식(법과 55)씨는 “외대가 21세기에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외대의 세계화와 연구는 대학으로 이름을 날리기 위해 많은 외대가족들이 기금지원에 많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병만 총장은 “21세기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외대가 세계 유수 명문대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2도약을 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대를 항상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외대가족들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당국은 약 3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하고 있다. 그 중 1600여억은 학교와 재단에서 마련하는 것이며 나머지 1600여억은 외대 가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다. 또 대학당국은 21세기에는 약 1천여억 정도의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이를 외대발전의 축으로 삼아 세계 최우수 명문대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한미대리대사에

게 외대명에 졸업장을 수여했으며 한국인으로 귀화한 여동생교수는 “외대에서 학생들을 28년동안 가르쳤으나 외대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외대인의 밤’ 행사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세계에서 제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성장이 요즘들어 둔화되고 정체되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연구하는 풍토가 없는 한국에서 연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하며, 학교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외대 가족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대발전제인본부에 많은 기금을 약정한 외대 가족에게는 △학교시설

및 도서관, 시청각 교육원 자료임 △위성방송 수신정보 제공 △외국학 및 지역 연구과제 제공 △간사씨 중점 △명단을 동판으로 제작, 건물 내에 부착 △건물 기둥시 기둥한 사람의 이름을 건물 명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외대발전 기금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국제지역대학원 운영, 멀티미디어·외국어교육센터 운영, 교수의 연구활동 및 학생 장학기금으로 쓰여질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 1,500명의 외대가족들이 13억 3천3백만원의 기금을 마련해주기로 약정했다. 모금운동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한다.

▶ 관련기사 3면

명재권 기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릴 순 없다

▲ ‘벼락맞은 청와대’, 또 시사주간지의 커비스트리이다. 지난 달 30일(금) 김영삼 대통령은 ‘중대한 결심’과 함께 그동안 제기되었던 대선자금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김대통령은 대선자금의 규모와 역수는 ‘벌써 5년’이나 지난 일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이가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해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국가의 내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단호하게 발표했다.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담화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청와대에 벼락이 쳐 부분적으로 화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 대선자금에 관해서는 자신은 깨끗하단 김영삼 대통령 이 대선자금에 대해 말을 꺼내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96년도부터 본격화 된 선도적인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재야 세력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라는 미명앞에서 주춤거리며 나아가길 방황을 잃었음에도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의 5년과의 연계성 중 대성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어 끊이지 않는 한총련의 투쟁으로 인해 재야단체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한총련의 ‘대선자금 공개’ 등의 구호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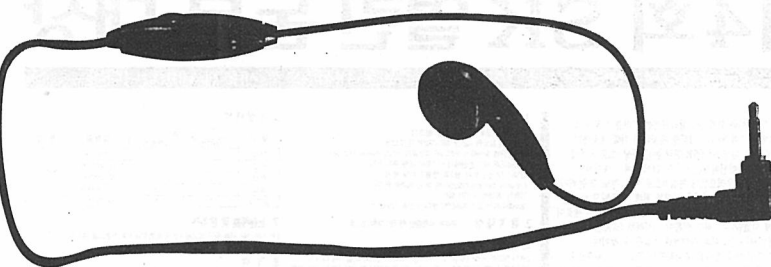
▲ 고 이석재의 죽음으로 인해 한총련이 살인폭도라는 언론의 여과되지 않은 공격을 받고 있으며 한총련 지도부 검거령 등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 드세어지고 있다.

고 이석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총련 간부가 이 일에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의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총련 전체를 폭력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여 한총련의 ‘대선자금공개’와 ‘한보비리 진상규명’ 나아가 ‘김영삼 대통령 하야’ 구호 전체가 모두 유효치 않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한총련 출범시점의 거리 시위태세를 보더라도 이러한 구호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또 하늘에서 벼락이 치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예나 지금이나 부패한 정치권에 대해 편발을 느끼고 난 있을지도 모른다. 불지도 모른다. 한총련의 구호가 제대로 파문이나 호통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목이 빠지게 하릴만 올려다 볼지도 모른다. 한총련의 구호가 제대로 파문과 거리시위로 국민의 지지도 서울편의 정권같은 유아무이 되어버리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허문숙

수습 기자
모임



이어폰을 끼고 계십니까?

주위에서 외치는 소리가 안들리시죠?
이제 잠시 이어폰을 빼서 옆에 놓아 두세요.
그리고 배울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대학보 수습기자가 될 수 있는”

이어폰을 빼고 달려오십시오.
당신이 들어야 할 소리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살아야,
여러 소리의 율림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가
당신의 모습일 거 같습니다.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학생회관 2층 ‘외대아보’로 달려오세요

○ 대 제2 도약 선포의 날 행사의 문제점

강요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하자

재단과 학교의 발전노력 병행돼야

지난 6월 3일(화) 학문호황에서는 외대발전캠페인본부의 '외대인의 밤' 및 '외대 제2도약 선포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의 A급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고, 많은 행사장비와 인원이 동원됐으며 많은 정부 관계부처의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아 이 행사를 마련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재정이 소요됐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외대 출신 동문들을 초대하기엔 협소하긴 하나 그래도 동문들이 학사장을 다시 한번 생가해볼 수 있도록 학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행사에서 총장, 재단장, 이사장, 총동문회장 그리고 여러 외대가족들의 축

하인사와 강연(?)의 내용은 대부분 '학교와 재단의 노력'으로 21세기 외대 발전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외대 동문들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등 외대가족들이 많은 돈을 내서 학교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외대발전캠페인본부의 취지는 좋다. 학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한층 더 우수한 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에 학교와 재단이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단은 학교에 대한 재원의 경성상입금 18억, 자산상입금 3억을 제외한 기타발전을 위한 재단전입금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후에 더 늘어나

할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은 재정의 70%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우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없는 거의 학교의 운영자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있는 재단과 학교가 우리 외대의 발전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 우리학교 출신 연연인 유열, 정은 아씨가 사회를 보면서 그들은 "적은 돈이라도 우리 외대 발전을 위해서 정성껏 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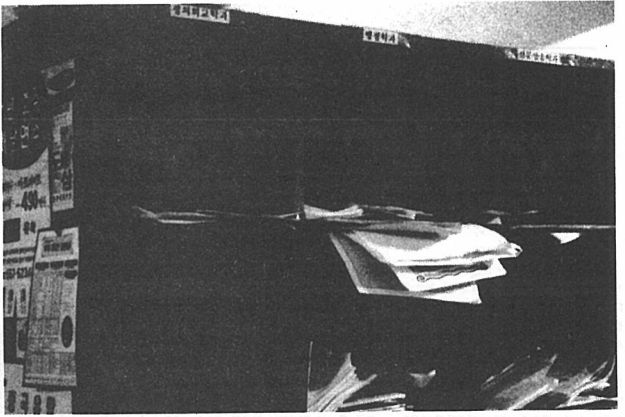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의 사회 진행은 그게 아니었다. 최소한 500만원 이상 내 외대가족들에게만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역대와 돈이라도 약정하면 "큰 박수를 보내주시지요"라고 말했으면 "사회지도 500만원을 약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

이 내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해 그 자리에 모인 외대 가족들에게 돈 내라를 유도한 것 같았다.

그 행사가 참여한 한 동문은 "나는 '외대인의 밤'이라 해서 오면엔 학교 다닐 때의 친구들을 만나며 즐겁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는 줄로만 알았다"며 "그러나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감을 드러냈다.

외대발전캠페인본부의 취지는 우리 동문들의 힘을 조금이나마 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와 재단의 병행과 노력없이 이루어진다면 외대발전은 여전히 갈망만을 남겨둘 것이다.

명재권 기자



주인없는 편지함

학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편지함이 권리소로 방치되어 있다.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과 각종 쓰레기, 상업 광고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다. 이러한 권리소들로 태워질지도 모르는 분실사고도 빈번하다.

임승희 기자

○ 대발전 캠페인 본부장을 만나

“재단·외대발전캠페인본부도 5년동안 160억 지원해야 한다”

지난 3일(화) 학문호황 컨벤션센터에서는 '외대 제2도약 선포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4월 7일 발족한 '외대발전캠페인' 본부의 활동이 본 캠페인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외대발전 캠페인' 본부(이하 '외대발전')의 주축동원 및 발족까지 등을 본부장인 안영호(마인어과)교수로부터 물어본다.

편지자

어떤 배경으로 발족하게 됐나
한 총장이 취임했을 당시 21세기 외대발전 '위원회의'라는 기구가 발족했다. 그런 중에 우리학교가 지난 해 최우수국책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5년 간 160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대학당국도 그에 대응하는 자금(matching fund)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로만 구성된 21세기 위원회보다는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 수 있는 외대발전이 지난 4월 7일 헌편식을 시작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중점사업은 무엇일까요?
그렇다. 국책대로서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대응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기금인 셈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문과 학부모의 주소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한 액수는
6월 3일 하루동안 9억이 걸렸고 지금까지는 13억 2천만원 정도 모았다. 기대는 못 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모금한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
우선적으로 외국학술연구센터 건립에 집중투자된다. 또 알티미디어·외국어교육센터의 건립도 구상 중이다. 외국어와 지역화 중심으로 우선 투자하고 조금씩 갈라하면 학생시설에도 투자하겠다.

그러면 학부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지 않을까?
정확기금의 선전과 등 학부생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직접적 혜택보다는 단계적발전을 기대하는 게 좋다. 또, 학문이 전문화되는 시대에 학부의 기초학문 중심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생은 학과원에 가서 수혜를 받으면 된다 고 생각한다.

재단전입금은 없는가
1/3 정도 부담한다. 즉, 정부에서 160억, 재단·외대발전이 각각 160억 정도 마련 할 것이다. 사실 재단이 5년동안 160억을 내놓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재단은 간혹재정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해줄겠다는 비전의 소리도 있는데
특수한 목적이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또 학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 바 있다. 앞으로 역대 학생회장단에게 모금을 한다던지 학생회가 할 일도 있을 것이다. 학생참여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은 학생들이 공부할 인센티브를 고시합격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다.

동문들 외에 학부도 참여는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가
7월 초순부터 우선 선 4개지역을 시작으로 학부모임회를 열 것이다. 이어 전국 5대도시를 순회하며 예전의 학교풍보기 아닌 모금중심의 간담회를 열 것이다.

거액의 돈이기 때문에 행정 등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돈사용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책대 선정 후 지급되는 돈은 정부의 감시 속에서 사용된다. 또 '한국외대발전위원회'(이사장 우석목 부총장)도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돈에 손을 못 댈다.

박윤정 기자

코카콜라의 횡포는 계속된다

‘용인, 학생측 코카콜라 공급시 불매운동 벌일터’

지난 6월2일(월) 용인배움터 대학생을 합동조한(생협)이사회는 2년간 자판기 음료로 공급할 회사를 결정하는 자판기 공개입찰 회의를 열었다.

이번 공개입찰에는 두산음료, 롯데칠성 등 3개업체가 참여 하였으며, △복지 기금 70점, △운영계획 20점, △회사 운영능력 8점, △가산점 2점(이것은 전년도에 용인배움터 자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에 부여했다) 총 100점 만점으로 이사회들이 점수를 매겨 자판기 공급 회사를 결정 하였다.

이번 입찰에서 복지기금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은 자원을 하기로 한 두산음료가 전년도에 이어 용인배움터 자판기 공급업체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두산음료가 자판기 공급업체로 결정되어 미국 코카콜라사의 음료가 우리학교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코카콜라사는 우리나라의 범양식점과 불공정한 합의서(외대학부 691호 참고)

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범양식점 코카콜라사의 음료를 공급하게 하고, 자체 상품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여 현재 범양식점들은 문을 닫아야할 상황에 몰렸다.

또한, 코카콜라사는 앞으로 이러한 합의를 작성한(범양식점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불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여러 바블러 회사들과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원액을 공급하지 않고 코카콜라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 직영을 하겠다고 업포를 놓았다. 이로 인해 코카콜라사의 음료를 공급해야 하는 여러 회사들은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몰렸다.

이러한 코카콜라사의 음료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두산음료는 이에 대해 아

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협 학생위원회(한우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그동안 두산음료가 자판기 공급권을 내주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대해 생협학생위원회의 위원장 재근 수(서학·불어 3)은 "더 이상 미국 코카콜라사의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코카콜라가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생협 학생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회들이 두산의 복지기금에 두산음료에 많은 점수를 준 것 같다"며 미국의 자본은 용인배움터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인과과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른 생협이사들도 두산음료의 계약이 만료되면 생협이 자판기를 직접 하는 것으로 해약한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번 달 2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2년간 두산음료와의 계약이 이행된다. 이때 코카콜라를 들어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산음료에서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코카콜라가 두산음료의 자판기에 포함되어 들어온다면 생협 학생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이를 막기 위해 불매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코카콜라의 한국기업에 대한 횡포와 캠퍼스내에 까지 침투하는 그들의 음모. 우리는 단순히 복지기금이 많다고 하여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속적인 자본유입으로 당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명재권 기자

취재나누

“기숙사 식권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식권을 이용해 아침, 저녁 식사를 기숙사에서 먹어야 하고 점심 식사때만 기숙사 식권으로 후생복지관(후생관) 아래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식권으로는 점심식사의 경우 후생관 식당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이 바로 있을 때는 후생관 까지 내려가서 못하고 여문 대학생활협동조합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거나,

먹지 못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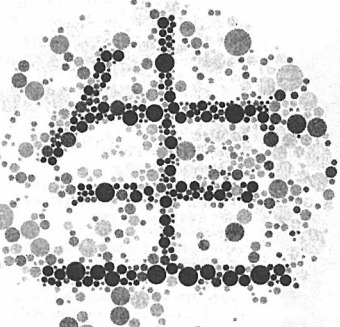
이로인해 식권이 항상 남으며 남은 식권을 다량매입하는 일을 할 수 없어 다버리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숙사가 아니면 거의 사용도 못하여 버리게 되는 식권을 기숙사 생활비를 낼 때 지출해야 하고 또 다른 식사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학당국은 기숙사 식권의 자유 사용을 하도록 해야한다.

명재권 기자

생명보험은 생활입니다.

생명?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아직도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미래가 불안한 '생명(生命)'입니다.



생명보험 TV광고 아이디어 공모

돈없는 미래 준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십시오.

1. 대상

· 전문대이상의 대학생(광고 동아리), 생명보험업체 종사자(생활경제사/영양소장 등) 및 관심있는 일반인

2. 응모방법

· 광고주: 위험보장보험 + 연금보험

사고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노후는 결코 먼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는 생명보험으로 자신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돈없는 미래준비,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 응모요령: TV광고 아이디어를 콘티 또는 A4지 1매 내외로 정리하여 발송 또는 우편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97년 6월 30일(월)까지
- 응모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국민빌딩 16층.
- 수상작 발표: 월간생협(생명보험월간지) '97년 7월호에 발표 및 회원사 홍보부, 대학 학과사무실을 통한 개별 통보.
- 심사: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광고계의 권위자로 위촉함.
- 문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02)275-6051, 전래드 기획과 (02)514-1002

3. 시상

· 대 상(1명): 상금 500만원 · 우수상(2명): 상금 각 200만원 · 장려상(5명): 상금 각 30만원

■ 96 생명보험TV-CM '생명보험 생활' 편



○ 해설: 위 두 작품은 생명보험을 주제로 하여 각각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통해 생명보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해설: 위 두 작품은 생명보험을 주제로 하여 각각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통해 생명보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해설: 위 두 작품은 생명보험을 주제로 하여 각각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통해 생명보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대한생명 / 제일생명 / 삼성생명 / 한국생명 / 교보생명 / 동아생명 / 대진생명 / 태평양생명 / 국민생명 / 한익생명 / 한국생명 / 신한생명 / 동부생명 / 중앙생명 / 코오롱-메트생명 / 고려생명 / 삼성생명 / 영풍메리타생명 / 교보생명 / 한성생명 / 조선생명 / 금호생명 / 중앙생명 / 국제생명 / 두산생명 / BYC생명 / 대원생명 / 한일생명 / 내일생명 / 푸르덴셜생명 / 프락스생명 / 라이온생명 / 이베라생명



사진은 9년 시위에도 사망한 김귀경(성균관대)의 사제정면이다.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토론회

오늘의 과제, 6월민주항쟁의 정신으로 극복해야

4·19혁명, 5·18광주항쟁 깃발은 쿠데타

배후 세력은 '미국', 반미자주와 운동 확산

「지난날 25일(월), 27일(화) 이틀동안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이 열렸다.

89년 6월항쟁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규명인 이번 토론회는 크게 1980년대 한국사회의 구조와 민주화운동 등의 '성질', 6월민주항쟁의 과정, 주제, 성과, '한국사회의 민주화', 6월민주항쟁이후 10년, 그리고 6월민주항쟁의 계승과 민주화운동의 전망이라는 4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1. 2차에서는 6월민주항쟁의 전개과정, 6월민주항쟁의 이후, 주제, 성과, 그리고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3차에서는 6월민주항쟁 이후의 '한국사회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꽃'을 통해 6월민주항쟁의 계승과 민주화운동의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와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월민주항쟁의 계승과 민주화운동의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한 외세의 압력, 특히 미국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은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외세문제를 적극 개진함으로써 외세문제의 해결이라는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난날 1980년 6월항쟁의 흥남이 재 가라앉았다고 장에 5·16사태부터 반미주의를 담았으며 광주항쟁에서 불린 피가 마치 미르기도 전에 전두환 반란 세력이 권좌에 올랐던 과정은 각각 항쟁의 완결성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배후세력에 대한 차이를 주고 있는 민주화투쟁의 성격이 다르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항쟁 당시 투쟁의 구심적이었던 국민운동본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담세력과 정치지향적인 계층 인사들이 다수 조직하고 있었던 반면 민주주의의 의식, 조직력을 기반으로 기층사회운동에 지향한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6월민주항쟁은 정치지향성에 머물렀을 수 밖에 없었고 '선거혁명'이라는 논리에 휘말리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선거혁명'이란 표현은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혁명적' 변화를 선거, 즉 '투표혁명'을 통해 이루자는 뜻이다. 이같은 발상은 민주운동의 역량을 제도정권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여전히 군부세력이 내세운 후보를 상대하기 위한 후보진출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제도정권의 정적형 위태로움에 대한 우려의 의미도 있는 한편, 향후 권력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었다.

안병욱 · 6월민주항쟁의 계승과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6월항쟁의 투쟁기조는 '반독재민주투쟁'이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갈증과 외국의 '최저선 개헌'이라는 구호를 통해 촉발된 것이지만, 6월항쟁의 투쟁기조는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통해 촉발된 것이었다. 6월항쟁의 투쟁기조는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통해 촉발된 것이었다. 6월항쟁의 투쟁기조는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통해 촉발된 것이었다.

6월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이 여전히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6월항쟁을 계기로 비로소 대중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1945년 분단 이래 우리 현대사의 지평을 바꾸어준 것이 민주적인 통일 민족주의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현대사는 이 세가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의 흐름은 어떤 정치과정으로든, 어떤 혁명으로든, 어떤 변혁이나 반동으로든 대체되지 않았다. 이런 시도를 끝내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87년 6월항쟁으로 확인할 바가 있다. 시대착오적인 지배세력에 맞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려는 민주화투쟁을 보면서 민중의 역사변혁의 실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해방전쟁기도 남북대결의 의제에서 촉발 지나가고

이 책

밝혀지지 않았던 고문, 계속되고 있다

80년대 초반 5.18광주민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며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다 반국가단체로 최정호 전장사관 관련자들이 그대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한 수기가 나왔다.

5공 정치범예비회복위원회가 엮은 '역사의 실마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 것으로 이 책은 5공 전두환 실권부대의 야만적인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 진상을 알리고, 오송희, 한을희 사건에 관련된 11명의 육성으로 고발하고 있다.

'새는 역사를 노래하고 나무는 증언을 한다'의 정태숙(당시 봉천초등학교 교사)이, '나와 아랑의 사건'의 황보윤식(우일대실리인문대 인천지역본부 상임대표)이, '5공 공안경찰에 깃발한 민주경찰의 꿈'의 김창원(당시 경찰청)은 아랑의 사건 편에서, '교사가 된 강박'의 정성원(악사)씨는 오송희사건 편에서 '역사 앞에 밝히는 이야기' 반국가단체 환영의 사건'의 이유(목원대 신학대학원 재학)씨 등 각각 피해 당사자로서 5공의 인권탄압 행위를 증언하고 있다.

오송희 사건 관련 비정식(당시 군사 재일고등학교 교사)씨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글에서 "4.19위헌정변 직후 우리 기 손을 포기하고 병역을 했으며 오송희를 조직하고 강령을 선포했다"는 부분은 남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북에서 자살서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을 포기하고 병역을 했다'는 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확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고문과 관련된 자들은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영장도 없이 쥐도 세도 모르게 그 지하실로 끌려가 수감실간의 옥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 구심원으로 등극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학간, 환형을 경험했고 심지어 강제로 유사하게 지내기도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이 책은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했던 인권유린의 실상을 밝혀 해방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권위화 강행한 여우나 전권연한 박종철씨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 인권유린의 비극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경고하고 있다.

조정하 기자

색깔있는 대우광고 만들기 ③

세계경영,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대우가죽

참을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를 위하여!

성공을 좀 더 빨리하는 방법인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는 회의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감아내는 방법인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는 회의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감아내는 방법인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는 회의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감아내는 방법인가?

그때부터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그때부터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부터 세 세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





反문화유산의 해
-80년대 민중문화를 찾아

5. 민중영화

90년대를 넘어면서 새로운 한국영화의 가능성 창출된 언급되고 있는 '독립영화'가 일반화되는 것에 불명확한 인식에서 기인하는 막연함이 있다. 물론 기존의 한국영화가 갖고 있는 형식에서 탈피한 영상미학과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 흥행성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작품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 3-4억의 예산으로 제작된 영화를 독립영화라고 하는데, 일부의 경우 문화와 문화지연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영화들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상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상영은 심의에서 모양만 바뀐 엄격한 검열을 받아들이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판과 문제제기로서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여러 매체에 취재하는 독립영화의 견해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영화의 한 갈래로서 대중속에 근접하고 있는 독립영화를 단순히 지어내기로 제작되는 영화라고 경제적인 자본으로 정의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영화의 근원이 80년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형성된다는 보다 장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제도권에 대항하는 영상매체로서 사회변화의 일환으로 전개된 영화운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독립영화를 경제적 자본과 함께 더욱더 정치적 검열로부터 독립으로 규정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사회적 산

물이라는 인식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90년대의 사회주의적 붕괴에 의한 진보적 대중의 개방화 와 문명정부의 등장이라는 국내외의 정세에 가려져 불명확한 독립영화의 본래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현재의 독립영화는 변화와 대중적 정서와 조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진행되고 있는 것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일 뿐이다. 독립영화의 시 과정의 답습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영화운동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독립영화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최초의 영화운동들 포괄하여 활동하였던 '민중영화'로서 불완전한 기억에서 복원되어 있는 82년부터 86년 동안의 시기를 조망하는 일이다.

독립영화의 현대기에서 82년 출범한 '서울영화집단'은 영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결성된 단체였다. 이들은 우선적인 작업으로 제 3세계의 남미에서 전개된 영화운동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하는 책을 편역하면서 영화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설정하게 된다.

이들이 제기하는 민중영화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영화운동으로서 민중은 누구이며 민중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관에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궁극적으로 민중의 자기화학을 위한 영화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80년대 군사정권의 정치 사회적 억압과 탄압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던 문예 부분의 민중화운동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회복으로 민중영화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을 가져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운동의 대중적 접근은 제작방법에서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으로 저렴한 8mm필름의 기저를 이용하는 것과 재생산을 위한 보급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영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영화의 민중성과 공동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 3세계의 영화운동들 진범으로 받아들인 것만큼 당시의 국내 영화운동의 방향성에 적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중영화를 제 3세계 영화운동의 한실적 인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무비판적인 수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민중영화의 역할이 민중을 억압하는 현실을 그들 스스로가 직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의 기능을 중시하여 제작방법에서부터 공동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공동작업을 지향하였다. 또한 제작의 결과물을 갖고서 상업영화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관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영의 단계에서까지 대중적 평가의 장으로 공동체의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이 당시의 제작된 작품으로 제작이 현장에서 농민들의 취재와 재현을 통하여 다뤄진 다중성으로 재구성하여 농민들의 수세현을 남부투쟁을 형상화한 '수리세(8mm/35분/84년)'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화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와

소의계층의 인물들이 소외되고 좌절되는 삶을 극영화로 제작한 '그 여름(8mm/20분/86년)' 등이 있다. 그리고 서울영화집단과 다른 차원에서 메스컴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방송과 신문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오히려 기피되며 통째로 잊혀졌던 '상계동 철거투쟁'이 철거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홈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다. 이후 잠시동안 소향영화로서 대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작은 영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영화 산악구조에 관한 조심스러운 이해와 접근을 병행하려는 '열린 영화'는 제작과 보급의 실천적 근거가 없이 소외되고 영화운동은 표류하게 된다.

굳이 공식적인 영화운동의 선전적 의미에서 재구성된 민중영화로 제출된 '서울영화집단'은 기존의 불분명한 영화 집단들이 갖고 있는 위상과 한계를 극복하고 영화운동의 연합적 의미와 제작과 교육, 보급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려 하였던 것만 공민정국과 맞물려 영화운동의 첫번째 탄압사태로 기록되는 농성의 실패로 피폐해진 농촌현실을 고발한 '과랑세(8mm/29분/86년)'에 의하여 민중영화로서 한 세대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87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정치, 사회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운동은 간접적으로 독립영화의 진정한 '과업'이 될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민중영화는 지난 노동운동의 남지거품과 반대투쟁 등 정당하게 싸워가는

현장을 비디오 다큐멘터리에 의하여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독립영화로서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영화운동으로 민중영화는 여전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제작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인 역할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고 있다.

민영국 <독립영화협의회 회원>



반 중 문화강연

문화의 담론들이 무성할 때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알고자하는 욕구가 드러나고 있다.
곧 있으면 맞이할 봄에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강연을 소개한다.
편집자

제 10기 여름강좌
주최:한겨레신문문화센터
문화<신선> 3272-7575, FAX 3272-9235
<문선>710-0182, FAX 710-0180

△비디오 제작학교
강사:노동자뉴스제작단
일시:화·금 저녁7시-9시

△출판문화학교(기초반)
일시:화,금 저녁 7시-10시
강사:우리문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회원

△영화강좌-영화비평의 근거와 규범
월요일 저녁 7시-9시 3개월

△문화비평 강좌-90년대말 문화담론의 이해:
세기말 대중문화, 광고와 영상문화의 메시지 등
월요일 7시-9시 3개월

△영화평론과 과정
수요일 7시-9시 6개월
강사:이윤권(영화평론가), 유자나(*), 김영진
(제네라티지, 영화평론가)

△대중음악이 평론가 입문과정 - 대중음악의 이
야기 주제 그리고 의미들
강사:임진모(작곡가, 칼럼리스트)

△민중예술교육실
1. 목련화반
강사:유연복(문화화, 민예회 회원)
2. 우리춤반
강사:남기성(놀이마 '한두루' '소리없는 만
가' 등 연출)

3. 우리 붓그림반
강사:김봉준(화가, 동아일보 '아라비안나이
트' 그림연재)
4. 단소반
강사:김영수(서울대 국악과, 중, 중요무형문화
재 30호 이수자)
5. 판소리반
강사:하예선(인간문화재)

문예아카데미
주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의: 745-6471, 743-5573

●낮강좌(낮3시)

△매주 월요일
대중문화의 사회적정치적 이해:팝스주의 문화론
그 이후
강사:이규보
△매주 화요일
1.실용영화, 그 실용의 역사와 그 전망

강사:신강호(중앙대 강사), 성기원(서울대 강
사)
2.목판의 불로 본 인간: 주체의 욕망인가 욕망
인의 주체인가
강사:안문득(교과대 강사)
△매주 수·금요일
1.영화의 스타일부 1:장르의 스타일
강사:신강호(영화평론가)의
2. 사건의 역사로 보는 사진 미학
△매주 목요일
영화사회의 이해 : 뉴미디어의 문화사적 의미
-21세기부터 미디어 시대의 철학적 고찰
강사:정근원(미래영상연구소 소장, 서강대 강
사)

△매주 금요일
영화의 스타일 분석 2:작가-유럽의 감독들 편
강사:박성수(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저녁강좌(저녁 7시)

△매주 월요일
문화철학:자연으로서의 육체와 상상력의 사회

사
고대의학에서 현대 유럽의 식사 매너까지(슬
라이드 강좌)
강사:민현민(덕성여대 철학과 교수)
△매주 화·목요일
이호인의 영화교실:한국영화분석을 통한 영화
학의 이해 -한국 영화의 모태
강사:이호인(영화평론가)
△매주 수요일
문화이론과 문화현실의 주제를 이해
강사:이성숙(문화지평자,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의
△매주 수요일
지배나메이션(Domination)의 담론적 논의
강사:한창원(새로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학
과)

△매주 목요일
트렌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그 주체의
자성사
강사:최범(이론평론가)의
△매주 금요일
미학사/예술사/예술론

강사:강성원(미하이론,미술평론가)
△매주 토요일
건축-구현된 물성
강사:배영민(시립대 교수)의

제16회 독립영화 워크숍(VIDEO/16mm
제작실습)
주최:독립영화 협의회

기간:7월 2일(수)부터 3개월간
일정:7월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국영화의 형식으로 공동제작(작업조건에 의하
여 기획, 촬영 및 후반작업 일괄)
내용:1.영화이론/ 영화감상 및 토론/ 공동촬영
및 제작
2.영상음악(Music 비디오)개인작업
20분 내외의 Video 국영화를 공동제작(2편이
상)
20분 내외의 16mm국영화를 공동제작(2편이
상) 및 촬영: 6월 16일(월)부터 23일(월)
까지 매일 오후 7시

I CAN DO!

PAGODA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http://www.pagodaa.com

미국인 영어회화

정규영어 회화과정

집중영어 회화과정

일본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특색/일본어 문법

일본어 회화 (초급 I · II)

영어

기초 영어회화

일시: 화, 금 저녁 7시-10시

강사: 우리문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회원

NEW 최신 프로그램

통신영어 강좌 (3시간/주)

대학원생 영어

전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원

영어·영어·중국어

스페인어·러시아어

■ 편리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 종료·입강·강사·신선 파고다 4개 학원 어디서나 원하는 학원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종 로 276-0579 (영어반) 신 촌 719-0579 (영어반) 입구정 516-0579 (영어반) 강 남 553-0579 (영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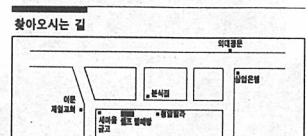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축 외대인을 위한 셀프 팔레방 개점 안내

셀프 팔레방
MAYTAG

• 팔레방 이용 보급의 가격 파격
• 간단한 등록절차로 세탁에서 건조까지 1시간이내 처리
• 셀프 이용으로 부담없는 가격
• 365일 연중 무휴

이용금액
세탁: 중형 4kg ₩1,000 대형 11kg ₩2,000
건조: 중형 4kg ₩1,000 대형 11kg ₩2,000



(전국 선)

셀프 팔레방 무료 이용권: 유효기간 6월 14일까지

세탁건조 무료사용권

<세탁용 4kg 중형만 해당함>대형 이용시 50% D/C

※ 무료 이용권 소지자만 무료사용 가능함

“을 여름은 호주를 느끼세요”

주한 호주대사관의 호주 정부 국제교육재단
(AIEF)이 운영하는 호주 정부 교육원(AEC)이
꿈의 대륙, 호주를 보여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11층의 호주 대사관과
함께 위치한 호주 정부 교육원(AEC)은
호주 교육의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유학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http://www.australia.or.kr)을 통해서도
호주의 교육정책, 환경, 승인제 등
호주 교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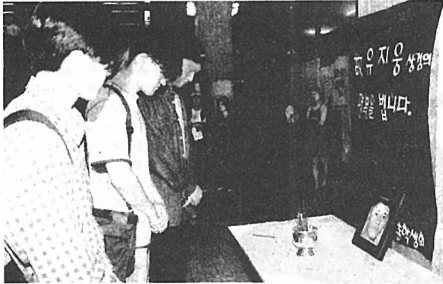
호주 정부 교육원
Australian Education Centre

TEL: (02)723-1397, Fax: (02)723-3065

URL: http://www.australia.or.kr

한총련 출범식 현장 스케치

“출범식은 7일동안 서울 거리에서 열렸다” 2명 숨져, 한총련 “모든 책임지겠다” 진심으로 사죄



전대협-한총련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탄압속에서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이 7일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치러졌다. 원래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로 한양대에서 열기로 했던 출범식은 시위까지 못했지만, 일주일동안 서울 시민들과 같이 거리에서 출범식을 치렀다.

이번 출범식에 대한 경관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경관은 6천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해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를 출발식 열출전부터 원천봉쇄하고 출범식에 필요한 어떠한 준비품도 반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연세대, 경희대, 건국대 등 서울시내 7개 대학까지 원천봉쇄해 버렸다. 또한 경관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자지하기 위해 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불게이트 등을 검문검색하고 학생들을 불법연행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가했다. 심지어 마산지방지방법원 학생회연합 소속 학생들이 탄 버스를 통제로 연행해 가기도 했다. 또한 출범식 참가를 위해 지난 30일 상경한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조영찬(조선대 총학생회장)군과 남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승호(순천대 총학생회장)군이 연행됐다.

‘대선자금 공개와 한보비리 진상규명, 김영삼 정권 퇴진’이라는 목표를 갖고 열린 이번 한총련 출범식에서 학생들은 7일 동안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양대로 올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밖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안 한양대 안에 있던 학생들은 ‘한양대의 원천봉쇄를 들고 출범식의 평화적 보상’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가졌다.

한편 6월 2일 전투경찰 유자충(22) 상경이 후 진하는 페퍼프고쳐어 깔려 숨졌고, 4일에는 이석(23)씨가 프락치활동을 한 혐의로 학생들에게 잡혀 조사를 받던 도중 폭행당해 숨지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총련은 “저지속

않은 두 분의 부모님들과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총련은 “이석씨를 죽음으로 이끈 학생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그러나 7일 동안 우리가 외쳤던 ‘대선자금 공개와 한보비리 진상규명, 김영삼 정권 퇴진’의 요구가 두 사람의 죽음으로 사장되어선 안된다”며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평화적, 대중적으로 김영삼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도 성명서에서 “한총련의 잘못이 정권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대선자금 공개와 대통령 하야 촉구라는 국민여론을 이 사건을 통해 무마해 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출범식 관련 언론 돌아보기



한총련 매도하고, 정권허물 덮어주고

제도언론에 있어 5기 한총련 출범식’은 대선 자금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이라는 전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잠재우기에 충분히 좋은 깨리였다. 이번 5기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한 위 보도와 비평에서 배극, 축소, 편파보도 일관한 제도언론의 행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보수제도언론들은 ‘한총련 또 난동인가’ ‘이직도 한총련 시위인가’ 등의 사실에서 한총련을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조건적인 정권에서 그들이 ‘외’ 달리는 열자를 새우고 타아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언론은 일관 반군도 없었다.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기 한총련 출범식’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은 불공정 축소 보도를 일삼았다.

한총련이 평화적이고 대중적으로 집회를 열기 위해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학우들이 실망되고 괴롭히며 실려나가는 회색을 감수하며 물리력을 자제하며, 시정과 경찰청장에게 출범식 초청장을 보내며 면담을 요청했던 노력의 과정들이 언론은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시에 평화적으로 치루어질 예정이었던 출범식을 합당한 이유없이 원천봉쇄하고 그 과정에서 화염병, 쇠파이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질적으론 나쁘고나 한계 무세한 작전만, 페퍼프고, 작적이 등 국민의 세균으로 만든 질풍은(?) 무기들을 거칠없이 쓰는 정부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국일보의 경우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기간하 공부만 해야하며 학생운동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나 그만해야 한다는 엉성한 논리를 들고, 동아일보도 한총련이 의한 대선자금공개, 한보비리진상규명, 김영삼정권퇴진이라는 누가 들어도 정당한 요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총련은 친북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한총련은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나쁘더라는 유자충 논리를 일관했다.

유자충상경의 사망당시에 언론은 왜곡과 축소를 넘어선 드디어 오보를 냈다. 페퍼프고 차량에 치어 숨진 유자충군의 사망원인이 밝혀지기도 전 9시뉴스와 일간지 사회면에는 ‘학생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전경 사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되었다. 그후 답답한사의 ‘오상은 없다’라는 소문에 ‘질신사’ ‘개포사’ 두개문 진압배때문에 상처가 안보일 수 있다’ 등 학생들의 폭력시위가 부른 죽음으로 유자충 상경의 사인을 꾸민다. 그 후 페퍼프고 차량에 깔려 죽은 것이 여러 명의 폭력자 전술과 의사의 부름에 의해 입증되자 언론은 유자충 상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 한 전경이 사수대 근처에 쓰러져 있는 사건과 함께 유자충 상경의 영정을 함께 이차 내보내기도 했다.

김정희 기자

한총련 출범식 이모저모

우리 교생 선생님들은 괜찮나요?

출범식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한양대는 우리 열출이 넘게 전투경찰과 백교단에 의해 원천봉쇄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을때 한양대내의 학생들은 ‘출범식 보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그 투쟁속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몇가지 소개한다. 편집자

법대생, 법전 들어미며 ‘불심검문’ 거부
5월 28일 한양대 정문에서 전투경찰들이 불심검문을 하자 1학년 법대생 2명이 법전을 들어미며 항의한 일이 있었다. 법대생 2명은 전경에게 “직무집행법 3조 1항에 따르면 의심을 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항에 따르면 위 규정에 준하더라도 검문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등등의 법규정을 거르려(?) 주장했다.

이날 두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전투경찰의 불심검문을 규탄하고 다같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 학생들이 교사사생이 아니므로 일반학생도 못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곳을 전경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학교속에서 공권력에 편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전대협 공동기자단

교문 열렸는데 왜 댜(학) 척척이
31일 한양대 정문은 전투경찰에 의해 사슬로 묶인 가운데 이날도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교문에서 종일 진행되었다. 그러던중 반발시위의 한 남학생이 절단기를 들고 쇠파스로 묶인 교문을 향해 걸어가지 전경들이 놀라 대열을 가다듬고

전경, 한양대 기숙사 점거
30일 한양대에는 기숙사 식당에서 전경들이 밥을 먹고 1층 로비에서 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수백명의 전경들이 기숙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학교로 이어지는 길목을 모두 가로막은 채 집문을 실시하고 있었다. 기숙사 학생들한테 알리보니 이불전부터 전경들이 화장실과 매점을 드나들었고 밤마다 기합소리로 불판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기숙사의 한 관리자는 “식당 아무나가 비가와 전경들이 고생한다며 전경들에게 밥을 제공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다”라며 식당 아무나 뒷모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기숙

K대 전자공과 3학년 박용준
내가 만약 LG산전의 사장이 된다면....

“학생회관과 도서관 사이에
수평이동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젊은정신이 미웠던 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곳- LG산전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기술이 아닐까요?

전리를 향해 도전하는 젊음이 크게 꽃 피는 곳- 바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전자산업에 이끌어주는 LG산전입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제품으로 산업을 움직이는 중추에 이르기까지- LG산전의 크고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세계를 향한 도전의 꿈을 펼쳐보십시오.

전력기기사업	전기기기, 변압기, 전계시스템, 대용량발전시스템 등
발전설비사업	발전설비, 화력발전설비, 발전기, 수력발전설비, 증기터빈 등
제어기기사업	PLC, 인버터, 모터, 릴레이, 센서, 릴레이, 에너지저장장치 등
발전설비사업	발전설비, 화력발전설비, 발전기, 수력발전설비, 증기터빈 등
산업기기사업	자동차용 전기기기, 산업용전기기기, 주조기, 세척기, 전동공구 등

산업전기- 전자 No.1
LG산전

④ 차 교육개혁의 내용과 문제점



고교식 인문계 - 실업계로 대학이원화

촌지 · 폭력 · 과외 고질병 치유책 없어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월) 4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5년 5월 31일 1차 교육개혁안의 마지막 완성작품이자 우리 교육의 3대 고질병이라 불리는 '촌지, 폭력, 과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됐다. 그러나 그립싸하게 덧붙인 이번 교육개혁안은 적소불 수백에 있는 한계에 놓여 있다. '교육개혁(통)안'이라 중명된 지난 3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의 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4차 교육개혁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비영문대학은 버림받음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인 대학에 대한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사교육비 절감과 인체의 지방분산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교육개혁의 설명이다. 교육개혁을 서울을 비롯한 일부 '가능성 있는' 사립대 등 2~3개 대학을 대학

원 중심 대학으로 선정, 향후 10년간 대학별로 5천원~1조원의 재정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이의 전제조건으로 학부 모집생원 수에 비해 최대 10%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대학원 정원도 늘리게 된다. 예컨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이 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되면 대입상 학부 과정에서 '일류 학과'는 실지리를 잃게 되고, 이에 따라 학부 입학에 대한 줄서기 경쟁과 과열입시 증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등과도 이미 어느정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99년부터는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대학을 연구중심의 대학, 기술중심의 대학으로 특성화한다"는 '대학특성화 육성방안'에 일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이 특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각 대학마다 특성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특

성화의 방향이 연구중심, 기술중심이라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대학간 차별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라기 때문이다. '연구중심의 대학'은 '대학원중심의 교육'이라는 모델과 잇닿아 있는 것으로써 대학의 학부를 기초전공교양과정으로 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심화과정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중심의 대학'에서 보다 고급화된 값싼 기능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인문계-실업계처럼 대학 역시 연구중심의 대학은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입시시험으로 변질될 것이며, 기술중심의 대학은 취업준비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대학을 특성화할 경우 소위 기존 명문대학은 연구중심의 대학을 표방하고 나설 것이지만 일부 사립대와 산업대 등은 기술중심의 대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연구중심의 대학을 표방한 반면 기술중심의 대학으로 개편하겠다는 대학은 한 곳도 없는 데서 충분히 확인된다.

또한 이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다. 교육부와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서울대 발전특별법'을 공시화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대학계를 떠돌고있는 '서울대 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중간에 교리를 갖춘 적이 있다. 그렇기에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대학계의 반응은 물론 사회가 다시한번 '일류대학'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

그 이외에 2월 교육개혁위원회(교육개혁)가 대령에게 보고한 4차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교육개혁이 예초 공평화를 통해 제시했던 방안 가운데 △촌지근감, 교사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 △사교육개혁을 위한 형·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일부 핵심적인 사안이 최종단계에서 제외됐다.

민주시민교육 방안

지난해 한총련의 연세대 종합관 철거농성사건을 계기로 김명삼 대령이 교육개혁위원회에 대해 취학을 지지하면서 나온 방안이다. 2000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 윤리, 사회와 등 관련 교육 내용이 보장된다.

또 국가 경쟁성을 확립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국사, 세계사 내용 중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을 늘린다. 고내 학생법원, 학생고충처리제도(윤부조판), 모의국회 등 모의 정치활동 등을 통해 학교별로 특성화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권장된다. 체벌을 금지하고, 교



사와 학생은 모두 역사 놀이공원 공영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정에 따른 전학, 전반, 단기간의 재교육, 전문가 위촉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체제의 개선

교과 내용의 항목수를 2000년부터 지금의 70%선으로 정산해 감축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2~3개의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해 5~10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한다. 고교 졸업생들이 주거지 인근 지역에서 이수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과감하게 지원·육성한다. 현재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개학을 정기적인 안목에서 9월로 전환한다.

정보화 교육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교육체 확립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조성하여 정보화 사회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교과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3살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을 유아교육 제도로 개편한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마련한다. 현재 0.9% 수준인 유아교육에 중·유아교육 예산을 상향조정하여 2000년에는 3%, 2005년 이후에는 5%이상이 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1년간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명시하고, 군 이하 지역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05년까지는 취학률이 100%에 이르도록 한다.

과외대비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 5년장을 '영양조치단계'로 정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초점을 두고, 학원

및 개인과외의 현황을 체계화해서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 뒤 5년간은 '학원사숙단계'로 학교 교육과외의 조화를 전제로 학원 및 개인과외를 잠정적으로 자율화하며, 합리적인 과외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2008년부터는 '정상화단계'로 접어들어 모든 교육적 요구가 학교 안에서 충족되고, 사교육은 공인된 학원 및 개인과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교육 정상화 △지방대학의 집중육성과 대입전형방식의 합리적 정착 △학원 운영체제의 합리화 △삼각후를 활용의 확대 △위생방출과 등 정보통신 기술의 최대한 활용 △학부모, 학생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촌지 · 과외의 두루묵

그러나 여기서 촌지 문제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청회까지 치렀지만 최종보고 단계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특히 과외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 문제는 맞닥뜨려의 우려극점을 줘다 보고대상에는 올랐지만, 지난달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방안과 비슷한 상태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교육개혁의 과외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는 학원 및 개인 과외를 잠정적으로 자율화하고 10년안에 과외가 필요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결국 공청회 당시 제기된 전면허용론이 '승인'한 셈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고교이라는 발동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10년만 참으라'고 요구하는 꼴에서 논점이 잡히지 않고 잠정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황 회 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외대인의 탈출

○...크로니클자 어느날 외대에
서 '외대인의 밤' 행사에 초대돼
힐튼호텔로 갔다. 호텔에 들어가
자 그 안은 금은 보화들로 가득하
여 이런 곳에 처음 온 크로니클자
어릴 줄 몰라다 식사가 나오자
'웬 떡이나' 하고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갑자기 돈 내라는 것이었
다. 특히 5백만원 이상이 나면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본 크로니클자 갑자기 채워야 병
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 이때 옆
불러서 이어서 크로니클자 한 마
다

〈권〉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알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를 바라보면 변변함
이 없었다.

크로니클자 알아보니,
‘옛날: 내로는 로마를 불지르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에 열이 붙어 버렸다
나?’

요즘은... 03: 내 내 아들과 함께
대선 지금의 대재나 한보비와
의 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국국민 모두 열아버렸
다.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우리의 크로니클자도...

〈경〉

○...크로니클자가 청와대 앞에
서 '외대인 공개'를 외치고 있
었다. 그러자 갑자기 청와대에 버
려져 버렸다. 놀란 크로니클자
크로니클자를 잡아 '나'가 그랬
지? 그러자 무고한 우리의 크로
니클자 '내가 안그랬어?' 그러나
지치지 않고 다그치는 '나' '나'가
그랬잖아'. 억울한 우리 크로니클
자 '내가 안그랬나' '나'가요. 비열
한 '나'에 대한 사과와 사과를 받
지 않을 거고 내내 내내. 그러면
서 멋지게 한마디 '나도 안그랬
어' 〈희〉

"난 안 그랬어"



4차 교육개혁의 핵심내용인 '연구중심 대학원 집중 육성' 방안은 비영문대학을 기술대학으로 전학시킴으로 대학지배력을 심화시킨다. 사진은 우리학교 대학원

비둘기철판

이 문 별

□ 알립니다

· 이태리과 동문체육대회에 열립니다.
"63에서 97까지"
대: 6월 22일(일) 12시
대: 농구장으로 집결
종목: 농구, 축구, 발아구, 피구
(10대 하나되는 이태리과 학생회)

· 검토부 종강운동이 있습니다.
대: 6월 9일(월) 늦은 5시
곳: 노현극장

□ 찾습니다

· 카키와 이스트를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습득하신분은 꼭 흔 연락주세요.
연락처: 015-8472-9716

· 5월 30일 대학원 1층 화장실에서 고등제자갑을 부주의로
분실하였습니다.
습득하신분은 대학원 경비실로 지각을 맡기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증을
비롯한 신분증은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귀찮으셨지만
꼭 돌려주시요. 연락처: 963-8131

□ 수고하셨습니다

· 한총련출발식을 다녀온 비대학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비대학생회)

□ 근조

· 고 유지용 상경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동리연합회)

· 신방과 93학번 신민수학생 아버님의 영전에 조의를 표합니다.
(신방과학생회)

· 고 이석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한총련 출범식 준비단)

· 97 하계 어학 특강안내

대: 6월 30일~8월 22일 (8주간)

강의수: ELA영어회화

· AFKN강의

· Topic-5

· Reading-2

· Topic-3

· Vocabulary

· 일본어 회화 문법

· 컴퓨터 특강

접수처: 구내사직,외대사직

문의: 961-4447

(학생복지위원회)

왕 산 골

□ 알립니다

·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5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서울, 전산실습실 확충 개관해

대학원 5층 전산실은 연중무휴로

서울메듀터는 인문과학관 2층과 대학원 5층의 전산실습실을 확충하였다. 인문과학관 2층 4개 실에는 486컴퓨터 30대와 586컴퓨터 98대를 확충하여 총 128대가 갖추어져 있으며, 대학원 건물 5층 5개실에는 486컴퓨터 21

대와 586컴퓨터 141대로 총 162대가 되었다. 한편 실습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교내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내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자게시판에 방문 안 방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대학원 5층 전산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고 연중 무휴이며, 대학원 1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기타 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2학기 재입학·휴학·복학 신청안내

교무처 학적과에서는 1997학년도 2학기 재입학, 휴학(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복학(일반복학, 등록보충복학)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이며, 갖추어야 할 서류는 △일반휴학·일반복학원

서, 각서 1부 △일반휴학·군입대 휴학원서, 각서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복학·복학원서 (군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주인 등록초본' 첨부) △재입학·재입학원서, 학과장 의견서, 주인 등록초본, 성적증명서 각 1부 등

이다. 본인신청은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일반휴학과 재입학의 경우는 보조도 도장도 필요하다. 서울메듀터는 교무처 학적과, 운영배움터는 교무처 교무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창복 교수 신간 펴내

'카타리나 불륜의 잃어버린 명예' 번역

'카타리나 불륜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책은 우리 학교 독어과 이창복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 책은 하인리히 뵐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으로 매스미디어의 폭로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언론의 하나의 권력으로 존재하는 한 상황을 반성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학생처, 2학기 장학금 신청접수

20일(금)까지 학업성적 및 고시장학금

학생처에서는 97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 장학금과 고시 장학금을 신청·접수하며 신청기간은 20일(월)부터 22일(금)까지이다. 학업성적장학금의 신청서류는 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 학과 요구서류이며 신청접수는 각 학과장실에서 한다. 고시장학금의 신청지역은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1차이상 합격한 재학생으로서 고시 합격인원 1부, 재학생명 1부를 지참하여 하고, 학생처 학생과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외부장학금 수혜자는 성적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사범대,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해

B학점 이상 졸업예정자 대상

사범대학에서는 97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접수한다. 신청지역은 97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 및 교육과정 이수자로 서 전공 및 교과목 성적과 각각 B미만인 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접수기간은 2월(월)부터 13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는 교원자격 무시험 결정장서 1부와 주인등록증 1부를 지참하여 하며 접수장소는 서울메듀터서 전공 및 교과목 성적과 각각 B미만인 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 지역대학원 공개특강 개최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의 강연으로

국제지역대학원에서는 오는 11일(수)에 공개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23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세계경제대학원 강당(6210호)에서 열리며, '21세기 길을 맞이하는 한국의 자세'라는 주제로 김동길 교수가 강연한다.

Coordination toward North Korea'이며, 교수회관 2층 특별 강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관심있는 학생은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특히 본 특강은 영어로 진행된다.

세계경영대학원, 초청 강연회

97년 전기해의연수도 진행될 것

세계경영대학원에서는 오는 23일(월) 김동길 교수 초청 강연회와 97년 전기 해의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23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세계경영대학원 강당(6210호)에서 열리며, '21세기 길을 맞이하는 한국의 자세'라는 주제로 김동길 교수가 강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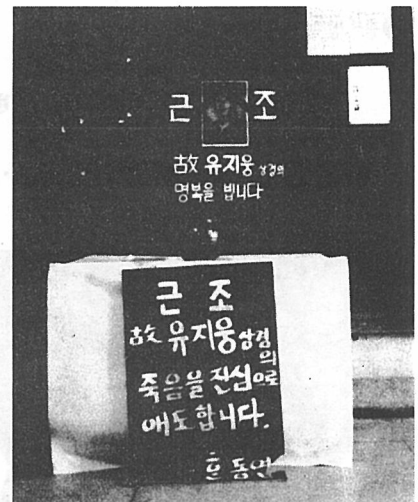
97년 전기 해의연수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조지워싱턴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연수프로그램으로 △세계화와 한국 체제를 통한 국제비즈니스 환경 인식 △국제전문인력으로서의 기본소양 체득 △현직 대학원의 우호증진을 통해 세계경영대학원의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정기 진료상담 및 예방접종 실시

서울 보건실에서 13일(금)

서울메듀터 보건실에서는 오는 13일(금) 정기진료상담 및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정진료상담의 경우 1회 접종시 5,500원이며 면역기간은 3년이다. B형간염은 1개월 간격으로 3회 기본접종과 매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하며, 1회 접종

시 5,500원이다. 한편 진료상담은 한국의학연구소에 의뢰하고 있으며, 각 학과 및 교과과에 정진료상담 예방접종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기타 문의는 전화 961-4036으로 하면된다.



지난 2월 한충륜 출판사 원천봉과정 중 다면발간자에게 치어 사망한 불유지자를 삼강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학내에 마련되었다. 한충륜 출판사는 아래는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학단신

사범대, '열린학교' 이룰 기획팀 일꾼 모집

참교육 실현의 몸소 체험 기회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3회 '열린 학교'를 이끌기 기획팀과 일꾼을 모집한다. △실습기회의 부족극복 △새도교육의 모순 극복과 대안제시 △학부교육의 연대 등을 목표로 내건 올해 열린 학교는 8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개최된다. 사범대 학생회 교육부장 박소영(사범·독과)은 "기존의 교육은 실재적으로 권력에 의해 변질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계층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열린학교를 통해 잠시나마 참교육을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총여 기지촌 여성을 위한 행사개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결하자"

지난 5일(목) 총여학생회와 주위로 '기지촌 여성을 위한 하브라본'과 '4)군은 "기지촌의 교육은 실재적으로 권력에 의해 변질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계층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열린학교를 통해 잠시나마 참교육을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림 사방 전시회 열려

만화로 '대조'를 표현

만화 그림과 그림사방이 지난 2일(월)부터 5일(목)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대조'를 주제로 출품되어 있는 만화를 통해 주제를 표현했다. 또 일러스트는 자유주제로 표현했다. 이 행사와 관련, 작년 그림사방 대표 정세진(공대·컴퓨터공학 3)은 "준비할 때 화제적은 시간이 부족해서 사진 제작은 컴퓨터 작업이 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교 교비가 서울메듀터는 5만원이 지급되는데 용인메듀터는 3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학교당국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한충륜 출판사 문예단으로 참가한 학생을 만나



이 사람

"거리에서 진행된 풍물로 힘을 불어 넣었다"

■신변보장의 이유로 이름과 사진을 실지 않습다

역사상 가장 초라한 출판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출판사를 지르고자하는 결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율해, 한양대 안에서 미리 출판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풍물·노래·영상·글씨·음악·춤·탈 등으로 꾸민 문예단에 출판물로 참가한 그는 당당하게 문예단에 대한 설명을 입을 열었다. "출판사의 문예단을 준비하기 위해 동·서·남·북 중심으로 300여명의 문예단이 꾸려져 1주일 간주해 학습을 하며 연습했습니다"라며 그는 짧은 인터뷰를 속에 말을 이었다. 27일(화)부터 준비한 출판사 본판과 의정출판관이 결국 소용없게 되고 2일(월) 한양대를 빠져나왔다는 말을 하면서 그는 "어린 학번 친구들의 심장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문예단 한 학에 있어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예단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그들의 문예단은 거리에서 진행된 것이다. 일일 전 풍물 공연. "전경을 만원으로 밀면서 처음엔 겁도 났다"며 "그러나 풍물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 이런 게 풍물의 진기가 아니겠냐고 말하며 북으로 직접한 막이거려 써온 '무용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다 "사람들이 걱정은 많았지만 한양대에서 출판사를 하리란 확신이 있었는 데..."라고 말을 흐리곤 "류지용 선생과 이석 씨의 죽음으로 많이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사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한충륜을 믿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한충륜은 있다" "우리는 신원(출판사)에서 연필로 사회과학계열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열정을 쏟았을 때 정도 아니라"고 대답하며 "그러나 우리 도서관이 타격을 입으니까 실망 안 할 수

있었고 그런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래도 한충륜 지도부에서 끝까지 기회지원을 하는 등 진심한 모습을 보여 준 게 좋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요즘 한충륜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마디했다. "여론이 우리쪽에 좋을 때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중앙일보)는 눈치도 없었지만) 요즘 때를 만난 한충륜을 평고하고 있다" "류지용 선생이 맞아 죽었을 거라는 추측 기사를 내고 도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정진보 다 강경하고 국민보다 먼저 흥분하는 제도언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출판사원 류지용 선생이 때때로 부정한 사물로 옮겨 놓으려 했다"며 "정민 민중과 함께 하는 출판사"이라는 의의를 강조했다.

박윤정 기자

국제지역대학원 공개 특강 개최

국제지역대학원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1. 특강일시: 1997. 6. 11 (수) 11:00~12:00
2. 장 소: 교수회관 2층 특별 강의실
3. 연 사: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
4. 주 제: U.S. - Korean Policy Coordination
5. 대 상: 관심있는 모든 분
6. 강의 방법: 영어로 진행

국제지역대학원 장

'97 취업 설명회 개최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에게 '97년도 채용정보 및 전망 설명회' 본 학생취업정보센터 이용 안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1997. 6. 9 (월) 14:00
2. 장 소: 용인캠퍼스 도서관 3층 세미나실
3. 대 상: '97년 8월 및 '98년 2월 졸업예정자
4. 설명회 내용: ▶ 1997년도 채용현황
▶ 성공적인 취업전략
▶ 최근의 면접동향
▶ 이력서 작성법
▶ 자기소개서 작성법
5. 주 회: 학생취업정보센터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97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실시

1997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시험기간: 1997. 6. 16 (월) ~ 6. 20 (금) 5일간
※시험시간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2. 평가방법
담당교수의 제정으로 필답과, 과목별 부과, 수업종 수업평가, 기타 관련인 방법으로 평가 함
3. 추가시험
가. 대상자: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시험을 모두 결한 자로서 유교결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1997. 6. 22 (월) ~ 6. 24 (화) 해당대학 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1997. 6. 27 (일)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A* 이하(학칙 제36조)

97학년도 제2학기 정규 수강신청 기간

변경 실시

1997학년도 제2학기 정규 수강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오니 유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변경전: '97년 6월 22일(월) ~ 6월 5일(목)
- 변경후: '97년 8월 18일(월) ~ 8월 22일(금)

1997. 5.

교무처장

각 대학원에서는 연구 인재를 널리 모집합니다

세계경영대학원(아간) (961-4093, 962-3350)

대학원(일반전형) (961-4104, 962-7117)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외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
나. 경제학사 - 국제경제학,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는 특별전형함.
- 해외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배후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비 상계제 전공과도 입학할 수 있음. 제학점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저출판 경력으로 하는 분은 특별 우대함.
- 국가공무원 및 군경자격을 교직원에게 수료사자 자격의 장학금을 지급함.

1. 지원자격: 가.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생
나. 정규대학 재학 중인 학생
다. 기타 학과에 준하는 학력
2.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명
3. 모집학과: 가. 경영학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외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
나. 경제학사 - 국제경제학,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는 특별전형함.
- 해외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배후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비 상계제 전공과도 입학할 수 있음. 제학점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저출판 경력으로 하는 분은 특별 우대함.
- 국가공무원 및 군경자격을 교직원에게 수료사자 자격의 장학금을 지급함.

세계경영대학원(아간) (961-4093, 962-3350)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외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
나. 경제학사 - 국제경제학,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는 특별전형함.
- 해외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배후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비 상계제 전공과도 입학할 수 있음. 제학점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저출판 경력으로 하는 분은 특별 우대함.
- 국가공무원 및 군경자격을 교직원에게 수료사자 자격의 장학금을 지급함.

박승비평 - 대선주자 텔레비전 토론

박찬호비평 - 박찬호 비침보기

“대선주자 TV토론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82·98·254조 위반확실



“대선주자 텔레비전 토론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언론의 ‘무소불위의 오만’이 이제 실감될마저 무시하는 후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 MBC·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시작된 이른바 ‘대선주자 텔레비전 토론’은 다른방송사와 신문사에 경쟁의 불을 질러, KBS는 조선일보와 제휴로, SBS는 한국일보와 손을 잡고 6월 2일부터 연속 3일간 열 시대의 이른바 ‘대선주자’들을 불러놓고 텔레비전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과거의 경력,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정책 등 명백히 선거법상 대통령 선거권자만이 가능한 선거관련 텔레비전 토론을 중계로 방송하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거권이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은 그렇게 중대시하면서, 준법선거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언론사들의 공공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렇게 선거법에 대해서 잘 아는 선거권이 이런 텔레비전 토론을 하나 이상한 고무를 ‘유권해석’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앞으로 어떠한 좋은 선거법도 이런 식의 ‘유권해석’ 방식으로 무한히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3개 텔레비전 토론을 예로 하는 사고나 토론 사회자 인사말의 내용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법 위반이란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①항 2호 및 3호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선거법 254조 ②항 2호의 규정과 맞물려, 선거관련 텔레비전 토론의 가능한 시간범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만일 이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16대 대통령에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관련 텔레비전 토론을 15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각 방송국이 마구잡이로 실시해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다.

둘째, 방송 및 신문 3자의 ‘대선주자’ 텔레비전 토론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는 이유는, 선거법 제 98조(선거운동 중의 방송·신문의 이용)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

선거법 98조.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어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어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론 내용을 들어본 사람이면 이번 텔레비전 토론의 내용이 분명히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또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의 하나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이번 방송 3자의 텔레비전 토론은 선거법상의 텔레비전 토론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둘째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으로 10명의 대선주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여 관련 선거법 규정은 텔레비전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법’에 관한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번 ‘대선주자 텔레비전 토론’의 텔레비전 방송을 가리는 관련 선거법 조항은, 누구나 상상이나 어렵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다. 우리는 ‘법’이 지켜지는 선거운동 조항을 위해 양자에서 한 언론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전파방송의 과급과정을 고려해서 대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박찬호는 ‘땀’ 일 뿐 ‘메움’ 일 수 없다

혼란한 우리사회의 사생아, 박찬호

대회의 휴게실 텔레비전, 그 텔레비전은 언제나 달아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아무도 바꾸는 이 없었지만, 스타는 눈길만으로도 감사를 받았다. 누군가 그 텔레비전을 켜고, 그리고 잠시 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아예 휴게실의 탁상을 덮어버리고, 의자만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간다.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되고 개를 들고 텔레비전을 가린 머리로 텔레비전의 빛을 본다. 메이저리그, 그는 불침번이 ‘박찬호’였다.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 또한 그속에 끼여 박찬호의 멋진 투구를 끝까지 지켜본다.

박찬호가 필요한 사람들

현대인들은 단순한 생활로 인해 무기력함과 지리함을 느끼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밌는 재미다. 그런면에서 ‘박찬호’는 우리에게 ‘최초의 메이저리거’라는 재밌는 흥분을 던져준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박찬호’를 자신의 방송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메이저리거 중계권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KBS는 박찬호가 등판하는 모든 경기를 내보낼 예정이다. 생중계 일정을 보면 공중파가 정규경기 15개일과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25개일을, 위성방송국이 40개일을 각각 방영한다. 중계권료는 모두 34만불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의 경기를 중계하기 위한 방송사의 열렬 경쟁은 유례없이 치열했다. 후문이다. ... 초반의 주도권은 MBC ... 20여만불의 중계료를 지급하기로 해 ... 그러나 막판에 KBS와의 경쟁에서 쓴잔을 마셨다.(국민일보 4월 3일자)

이러한 경쟁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한국야구의 영웅 ‘박찬호’를 보여주고 싶은 열망인가. 때때로 특성이 ‘이문구’와 ‘상업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그들은 그들이 풀인 돈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런 이윤 사냥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는가. 경쟁 박찬호가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방송사들이 아닐까.

박찬호는 땀장미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박찬호’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인들은 갈수록 쉬는 공허가 있다. 그것을 파스칼은 ‘하나님(절대적 존재 - 필자 주)에 의해 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공허를 메울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의 부재는 그것을 대신할 만한 존재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박찬호는 그 공간을 잠시나마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

는 스타며, 영웅이며, 우상인 것이다.

그러나 박찬호는 ‘땀’ 일 뿐 완전한 ‘메움’은 되지 못한다. 인간의 내적인 공허를 채우지 못한다. 그것은 잠시 후 더한 갈증으로 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을 채울 또다른 무언가를 찾아 가는 것이다. 현대의 종교 또한 물질적인 기술 발달로 인한 좌절감으로 인해 공허를 채울 해방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외로운 스타’들은 현대의 종교에 의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충족시켜준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한 신인 것이다. 그렇다. 박찬호는 자기원성의 결정이다.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무소불위인 것이다.

현 사회의 분위기가 또한 박찬호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을 돕는다. 수많은 비리 사건들, 부정부패, 경제적 난국,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는 자연히 현 사회에 희망을 걸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안정)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타락을 방지하려는,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대해 그들이 절망한 성숙의 희망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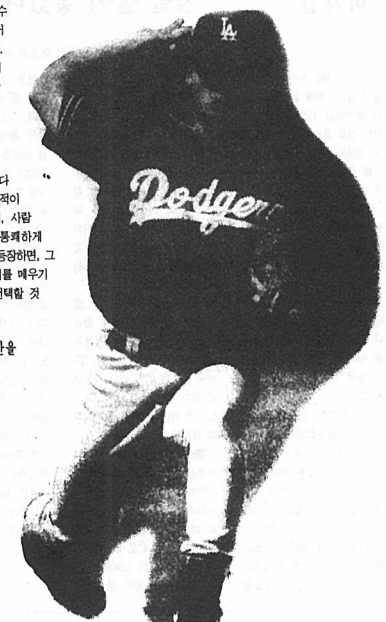
상받기 위해 수많은 애를 쓴다.

그렇기에 박찬호는 아무것도 기릴 것 없는 이 사회에서 자연히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박찬호에게 둘러싼 희망의 시선은 곧 실망의 사실이다. 또다

른, 아주 이색적이고, 감작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하게 할 만한 것이 등장하면, 그들은 다시 공허를 메우기 위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박찬호의 시간들

‘박찬호’의 화려한 투구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느껴진다. 생애가 경기가 끝나고 다들 일어선다. 탁상을 재 지리에서 놓기도 하고, 말도 없다. 다시 사



장운식
(사화·신화 3)

외대발전기금

첫걸음부터 세계를 향한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을 대표합니다

기탁방법

기부금의 납부방법은 지표를 이용하거나 다음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계좌명	계좌주
00000000000000000000	외대발전기금	외대발전기금

기탁내역 및 연락처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1세기 외대발전위원회)
02-3205-5701~4

참여자 및 후원

동문, 학부, 교직원, 재학생, 동창자, 기업체, 기관, 단체 등

후원 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 자산(부동산, 기타 귀중한 등)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학교 시설 및 도서관, 시청각 교육자료 이용 / 위생방송수신정보 제공 / 외국학 및 지역학 연구자료 제공 / 감사패 증정 / 명단을 동문으로 제작, 건물 내에 부착 / 건물 기둥시 출연자명을 건물명으로 부여

기금의 용도 (출연자 선택가능)

외국학동원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 국제지역대학원 운영 /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센터 운영 / 기타

세금 혜택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40조 2항 6호에 의거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손비처리됩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은 후원인 및 기부금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입금하신 후 본 위원회에 연락하시면 영수증 발급 등 업무에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간호가 '일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번학기 들어 12명의 신문을 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자 무던히도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지만,
역시나 많이 부족했던 한학기였습니다.

‘일몰’은 다음날 ‘일출’을 준비하는 한가지
방향 잘보내고 다음으로 만나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화보